

습관을 버려라

작성일 : 2010. 10. 05. (화)

작성자 : 이수정 (부산 주믿음교회 치어)

[새벽에 기도 중 저의 나쁜 성격, 습관들이 생각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. 저 혼자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. 정신세계 하나, 하나 까지도 다 손 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습관을 버려라.

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습관.

말 안 듣는 습관.

정신 잃는 습관, 즉 신앙이 힘든 것.

주의 정신 갖지 못하는 습관.

마음 주관 못하는 습관.

정신 합리화의 습관,

즉 말씀을 자기 상황에 합리화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.

습관이 무서운 것이다.

습관만 버려도 부활될 수 있다.

자기 성질 버려야 부활된다.

성질도 습관이고, 성격도 습관이다.

육적인 자, 영적인 자 모두 습관이다.

습관의 차이이다.

습관 때문에 판가름이 난다.

늘 하던 습관대로 그날도 맞이하냐.

육적인 자. 육적인 생각이 가득한 자.

주 앞에서도 그러하다.

그날에도 육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, 주 앞에 나간다.

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여 판단하는 자는

주 심정 맞춰 그날에 주를 맞이하게 된다.

습관, 너 자신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.

그날에 맞는 것도, 못 맞는 것도

모두 네 행실, 습관 때문이다.

습관을 버려라.

영적인 습관만을 가져라.

늘 기도하고 나의 생각에 충만하여라.

나를 중심하여 판단하고 나를 중심하여 행하여라.

처음에는 잘되지 않아 나를 잊고 살겠지만

정신으로 하면 할 수 있다.

마음먹고 정신 단단히 행하면 네 삶으로 이루어진다.

나의 말들을 네 삶으로 나타내어라.

말이 그저 말로 끝나면 부족하다.

행함으로 보여주어라.

습관은 무서운 것이다.

습관은 남을 해치고 너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힌다.

해 당하는 자 되지 말지니라.

온전히 나, 주를 맞자.

마음을 비우고 깨끗케, 온전히 하여라.

너의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.

나의 말을 들어라. 집중하여 들으라.

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대로 남도 대하고, 나도 대하고,

자기 스스로도 대한다.

인격이 신격화 되어야 한다.

인격은 인간의 품격이요,

신격은 신의 품격이다.

나 예수의 품격을 갖추라.

정신이 품위 있게 빛나야 한다.

그 정신은 나 예수의 정신이고

선생의 정신이니라.

마음, 정신, 생각을 고쳐라.

마음, 정신, 생각이 네 몸속에 암도 되고 핵도 되니

깨끗이 고쳐 네 지체로 만들어라.

제 지체가 아닌 것이 지체에 있으면 사망이다.

그렇지 않느냐.

깨끗한 지체가 되어라.

나 예수는 간다.

그러나 곧 네게 다시 오리라.

신부 택하는 '지금'도 진행 중이나 곧 그 문이 닫힌다.

안녕.

너희의 신랑 주 예수니라.